

Ethylene, 동아시아 가격 급등조짐

Chandra Asri 크래커 가동중단으로 ... 프로필렌도 동남아 가격 강세

Ethylene 가격은 11월7일 FOB Korea 톤당 410-420달러로 5달러 상승했다.

그러나 Chandra Asri의 나프타 크래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CFR SE Asia 가격은 530-540달러로 25달러 급등해 동아시아 가격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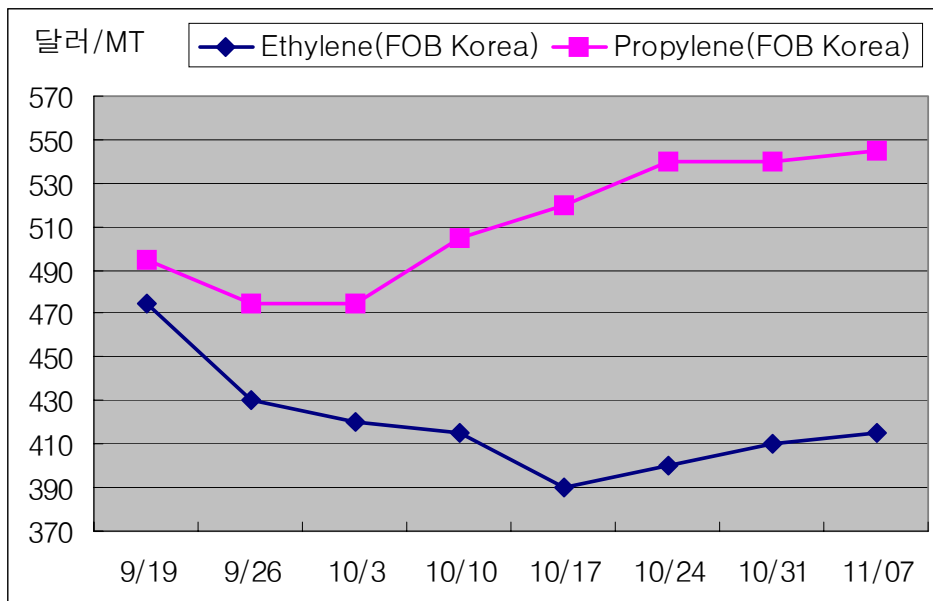
에틸렌 수급타이트 전환에 PE 시장도 LDPE, LLDPE, HDPE 3가지 모두 급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Chandra Asri는 11월4일 사고가 발생해 최소한 1주일 이상 크래커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크래커와 연계돼 있는 2개의 PE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고, Chandra 크래커에서 에틸렌을 공급받는 Perindo 2개의 PE 플랜트 중 하나의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handra Asri는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에서 에틸렌 2개 Cargi 4500톤을 CFR 530달러에 구매했는데 운송기간을 맞추기 위해 톤당 10-20달러의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Titan도 지난주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 12시간 정도 크래커 가동을 중단했다.

Ethylene 및 Propylene 가격추이



프로필렌 가격도 10월7일 FOB Korea 톤당 540-550달러로 5달러 상승에 그쳤으나 동남아 가격은 CFR SE Asia 톤당 570-580달러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Chandra Asri의 나프타 크래커 가동중단으로 동남아 시장의 수급타이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동기업들은 11월 하순 또는 12월 초순 거래물량 가격으로 CFR SE Asia 톤당 59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및 타이완도 구매기업들은 555-565달러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급기업들은 CFR 58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프로필렌 가격상승에 따라 PP 가격도 Injection/Raffia 그레이드가 CFR China 720달러로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10>